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8호

체육시민연대 킬링

학생선수는 누구인가? : 학교 운동부문화와 학생선수의 이해

임용석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충북대학교 교수

데이트폭행

정치석 태극마크 못 달듯·체육회,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 개최

장현구 연합뉴스 기자

스포츠와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 지적 받았던 KIA의 놀라운 변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김근한, 박동희 스포츠춘추 기자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

러시아에 억류된 WNBA 스타 브리티니 그라이너는 언제 풀려날까

김경호 스포츠경향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동성 간 성희롱 가해자에 징계 요청

장현구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칼럼]

학생선수는 누구인가? 학교운동부 문화와 학생선수의 이해

임용석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충북대학교 교수

문화는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다. 말, 글, 행동, 의식, 룰, 상호작용방식, 건축물 등 물질적, 정신적, 상징적 행위(관습을 포함한다. 문화는 일정한 사회의 범위 속에서 사람들이 습득하고 생산하여 공유하는 지식과 행위를 포함한다(신경림, 장연집, 조영달, 김남선 외, 2003). 문화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개인, 그룹, 단체 대부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집단 내에서 문화는 '할 것'과 '말 것'을 구분하는 기준(standard)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집단,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이해를 위해선 그들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학생이 공부한다. 선수가 운동한다.’

당연한 듯하다. 당연한 것은 항상 정당한가? 대한민국 학생의 대부분은 공부를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더 좋은 학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남들보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선택한다. 반면 선수는 운동만 한다. 운동을 중심으로 숙소와 운동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운동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도 직업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선수를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많이 모르고 있기도 하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만나고 있으니 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학생선수와 그들이 속한 운동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부족하다.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다루어 나갈 학생과 운동선수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105,626명의 학생선수가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운동부에 속한 집단이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학생선수라 지칭된다. 학생선수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 선수등록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학교 운동부에 속한 선수가 된다. 이들은 좋은 운동실적을 통해 상급학교, 프로, 실업팀에 가고자 한다. 학생선수 대부분은 전문선수가 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신의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프로나 실업팀으로의 입문의 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부 학생선수는 총 4,519명이다. 학년(고교 3년, 대학 4년)을 근거로 한 학년 당 선수를 구분하면 고등학교(1,055명), 대학교(338.5명) 학년단 학생선수 수가 추산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추론해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 가능한 야구부 학생선수의 비율은 32%(338.5명)에 불과하다. 2/3의 학생선수는 운동을 그만둬야한다.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가 매년 100명의 신인선수 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교, 대학에서 프로진출이 가능한 비율은 9.4%로 떨어진다.

대부분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선수’는 왜 운동만 할까? 학생선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선수,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운동부로 부르던 호칭은 그들이 학생임에도 학생임을 드러내지 못했다. 전문운동선수와 동일하게 운동이 주가 된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학생이면서 학생이 아닌 이름으로 불린 이들. 학교운동부에 속한 이들에 대한 호칭을 ‘학생선수’란 새로운 명칭으로 논의한 시점은 2000년대 초반이다. 미국에서 ‘student athlete’이란 명칭을 직역한 것으로 사용 초기엔 어색하고 낯선 용어였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일반화된 명칭으로 사용된다.

다음 장 계속

학생선수는 '학생'과 '선수'의 합성어다. 그들에게 '학생'과 '선수'란 업과 '공부'와 '운동'이란 역할이 있다. 학생선수는 두 가지 업에 따른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운동만 한다. 공부성적과는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동실적만으로 직업선수란 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에게 공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학교운동부의 '운동중심' 풍토는 1972년 시행된 '체육특기생제도'로부터 시작된다. 체육특기생제도는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초·중·고·대학에 이르는 우수선수 양성체제 확립을 통해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하고,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내고자 함이다. 유능한 체육지도자 양성은 덤이다. 1973년 병역특례법 도입, 1974년 포상금제도 신설, 1984년 국군체육부대 창설됐다. 운동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도, 경제력도, 명예도, 군혜택도 가능해진 것이다. 체육특기생제도는 2022년까지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변화양상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시기별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류태호, 2004, 29p)

구분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주관	국립교육평가원	대학 자율	대학 자율
기준	입상실적자(4위이내)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지망	동일계 및 타계 지원 가능	동일계 및 타계 지원 가능	동일계 한정 타계 전과 금지

대입에서도 학생선수의 학업선택 자율성은 제한된다. 2000년 이후부터는 동일계 입학으로 대학입학이 제한됐다. 이는 학생선수의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학생선수의 학업선택권을 원천봉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표 2> 엘리트스포츠 주요사건(2000~2021년)(임용석, 홍덕기, 2021)

번호	년도	범주	주요사건
1	2000	학습권	장희진 수영선수 국가대표 박탈
2	2003	인권침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폭력	고등학생 레슬러 김종두선수 죽음
3	2004	폭력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구타 사건
4	2005	폭력	LG화재 김영철 감독의 선수 폭행
5	2006	실태조사	인권위 초등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6	2007	성추행	우리은행 박명수 감독 선수 성추행
		학습권	KBS 시사기획 씬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방영
7	2008	성폭력	KBS 시사기획 씬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방영
		학습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체과원)
		실태조사	인권위 중,고등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8	2009	실태조사	인권위 중도탈락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폭력	배구 국가대표팀 코치 선수 폭행
9	2010	실태조사	인권위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10	2016	입학비리	정유라 대학 부정입학, 학사관리
11	2017	미투	테니스 김은희, 유도 신유용, 리듬체조 이경희 코치 성폭력 사건 등
12	2018	성폭력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행
13	2019	인권침해	스포츠혁신위원회 발족
		실태조사	인권위 운동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
14	2020	폭력가혹행위	고 최숙현선수의 죽음
15	2021	폭력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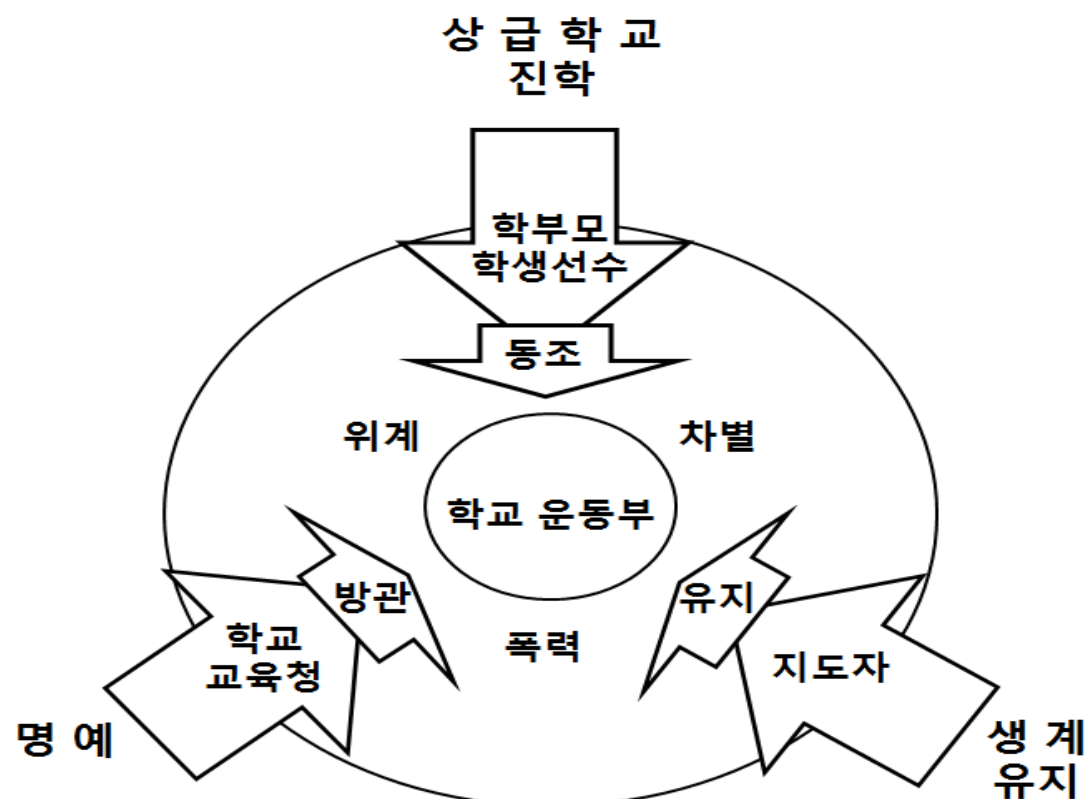
운동 실적 중심, 경기력 중심의 운동부 운영의 결과는 학교운동부, 직장운동부, 국가대표팀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분야에 다양한 부작용으로 발현됐다. 2000년 이후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정책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학교운동부 그리고 프로 및 대표팀까지 전문체육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왜 지속될 수 있을까. 학교 운동부 맥락적 구조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운동부를 이루고 있는 세 주체간의 반 인권적, 반 교육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다. 관리자로서 학교와 교육청은 명예를 위해, 공급자로서 운동부 지도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수요자로서 학부모와 학생선수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보다 좋은 경기실적을 원한다.

각각의 목적을 위해 운동부의 위계, 차별, 폭력 문화를 동조, 방관,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학생선수들의 학업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운동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운동부만의 '섬'과 '교실 섬'으로 대변되는 2가지 섬문화이다. 운동부는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에 위치하면서도 교육목적보다는 훈련을 주목적으로 운영된다.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이 일반학생과의 교류가 없고, 운동부만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 학칙(교복, 수업참여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운동부만의 관계형성은 운동부지도자→선배→후배로 이어지는 위계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지도자→선수, 선배→후배로 대물림되며 재생산된다. 이는 벙커 멘탈리티(Bunker mentality)란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마치 특수부대의 부대원과 유사한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며, 자신을 문화적, 신체적으로 외부세계와 격리시키며 자신과 외부인을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섬과도 같은 운동부에서 생활한 결과는 교실로도 이어진다. 운동만 하면 상급학교 진학, 군면제, 취직이 가능한 환경에서 운동이 주가 된 일상을 살고 있는 학생선수. 이들에게는 학업보다 운동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 사이에선 '다수'와 '소수'가 존재한다. 다수의 '하지 않으려는 자'와 소수의 '하려는 자'이다. 소수의 (공부를)하려는자의 의지는 다수의 '하지 않으려는 자'의 주장에 의해 대부분 소멸된다. 이러한 직간접적 집단의 영향을 또래 압력(peer pressure)이라 한다. 또래 압력은 집단 내의 개인 혹은 그 이상의 인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개의 문화적 섬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선수의 일상은 운동부지도자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이들에게는 운동이나 공부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다.

요약하면 학생과 선수의 신분과 그에 따른 학업과 운동이란 업이 있는 학생선수. 그들은 2개의 섬에서 운동중심 일상을 살아야한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운동만' 하도록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체육특기생제도가 시행 된지 50년. 오직 운동만의 외길(single line)을 걸어온 결과는 참담하다. 운동부와 관련된 학습권 결여, 폭력, 성폭력 사건은 일일이 나열조차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운동부만의 제한된 삶과 관계형성은 은퇴 이후 삶을 살아가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국위선양'이란 명목아래 선택해야만 했던 외길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학생선수 본인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학업'을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교육부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최저학력제'와 그에 따른 '출전제한'이다. 정규수업 의무화, 철저한 출결 관리를 학생선수의 학업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학업기준 미달에 따른 출전제한은 덤이다. 이를 통해 운동부 이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學力)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반발이다. 상급학교 진학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업이 아닌 운동 성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는 '육성'의 관점에서 학생선수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해왔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기에 특별한 '관리'의 대상으로 학생선수를 인정한 결과다. '운동만'에서 '공부도'하도록 '통제'하겠다는 논리다. 운동만 해온 학생선수들의 입장에서 공부도 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부담이다.

이들의 교육에서 지녀야할 중요한 관점은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과 선수의 두 가지 업을 병행하기에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존재'란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학생선수 교육은 학력(學力)으로 한정할 수 없다. 수업을 통해 운동부 이외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법을 배운다. 이들에게 수업은 나와 타인의 권리를 알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운동부 문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업능력 향상은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은 자력(自力)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empowerment)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이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문화)과 함께 학생선수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학생선수 두 가지 역할이 그들의 경력(dual career)으로 온전히 보장받는 날을 기대한다.

정지석 태극마크 못 달 듯... 체육회,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 개최

여자 친구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자 배구 특급 스타 정지석(27·대한항공)이 배구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곧 대표 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지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칭에서 보듯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는 체육회가 종목별 국가대표로 승인한 선수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동료 대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없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다.

체육회는 먼저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승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전날 발표와 달리 4월 말 정지석을 포함한 남자 배구 대표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승인했다고 내용을 정정했다.

그러면서 종목 단체별로 국가대표 승인 요청 건이 많고 체육회가 일일이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선별할 수 없었다면서 최근 정지석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다시 다뤄져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관계자는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는 국가대표 승인 후 열리는 회의이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성)폭력·구타 등 인권 침해로 체육계가 국민의 지탄을 받자 이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논의하는 기구인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2년 전에 설립했다.

위원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총장, 체육회 관계자 등 내부 인력과 법률 전문가, 스포츠 관련 종사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는 태권도, 쇼트트랙 등에서 문제가 있는 대표 선수들을 걸러내기도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기량뿐만 아니라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이런 기준으로 심의위에서 정지석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구협회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 남자대회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로 정지석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지석은 지난해 9월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서 합의했고,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건과 관련해 정지석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뜻하는 기소 유예를 처분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 검찰로 송치했다.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연맹 상벌 규정 10조 1항 5호 등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고,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정규리그 2라운드 잔여 경기 출전 처분을 내렸다.

‘장애인 차별’ 지적 받았던 KIA의 놀라운 변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 나섰다”

‘임직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1월 29일 KIA 타이거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내용이다. 이런 권고를 받은 건 KIA가 장애인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IA는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팔았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장애인 야구팬에 한해 현장 티켓 예매를 허용하라”고 매뉴얼을 변경해 각 구단에 배포했으나, KIA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매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잘 갖춘 것도 아니었다. 2020년 10월 20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로 KIA 경기를 보러 갔던 지체 장애인 A 씨는 구장 앞에서 “현장 예매가 안 된다”는 구장 직원 얘길 듣고서 곧바로 온라인 예매용 앱을 켰다. 하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끝내 예매에 실패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한 건 지체 장애인만이 아니었다. 시각 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예매로만 티켓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KIA 스마트폰 앱은 ‘야구장에 오지 말라’는 경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인권위 “KIA와 KBO는 장애인의 야구 관전권 보장하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KIA의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엔 ‘현장 구매 불가’란 문구만 적어놨을 뿐 ‘장애인에게 한정해 예외적으로 현장 판매를 한다’는 전혀 볼 수 없었다.

1월 29일 인권위는 오랜 조사 끝에 KIA 구단 사장에게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과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를 하면 피진정기관의 권고에 대한 반응은 권고에 반발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거나, 권고를 수용하더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가 많아, KIA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 박성훈 조사관의 얘기가.

그렇다면 과연 KIA는 인권위의 권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KIA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걸 넘어 경기 관람에 장애인 차별이 더 없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박 조사관의 얘기가.

사실이였다. KIA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22시즌 개막에 맞춰 장애인 현장 예매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조기영 KIA 마케팅팀 프로는 “장애인 티켓 현장 예매 시스템을 모두 재점검했다. 점검 중 기존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엔 ‘현장 구매 불가’란 문구만 적혀 있고, ‘장애인에게 한정해 예외적으로 현장 판매를 한다’는 안내는 적혀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예매 사이트에 ‘장애인 야구팬은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정확하게 명기했다”고 알렸다.

온라인 예매용 스마트폰 앱도 장애인 야구팬들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손을 보도록 조치를 취했다.

KIA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용 스마트폰 앱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KBO가 지정한 업체에서 만들고, 유지. 보수한다”면서도 “KBO에 ‘장애인 야구팬들의 앱 만족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해 KBO로부터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던 인권위...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칭찬, “KIA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권고 수용하고, 이행 계획 수립할지 몰랐다”

KIA는 '구단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1월 29일 인권위는 KIA뿐만 아니라 KBO에도 'KBO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KBO와 다른 구단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행에 여전히 소극적인 듯한 인상"이라며 "반면, KIA는 '5월 내 구단 임직원 모두가 장애 인식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행 의지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했다.

스포츠춘추는 과연 KIA가 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자 박성훈 인권위 광주사무소 조사관과 함께 불시에 기아·챔피언스 필드를 찾았다.

스포츠춘추의 현장 취재 결과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장애인 현장 매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장애인 표 예매 안내와 관련한 현장 직원 교육도 확실히 이뤄지고 있었다.

조기영 KIA 마케팅팀 프로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가 없는 삶)' 문제가 이슈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시타자'로 정병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을 모셨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라는 의미에서 시구자로는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을 시구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지고 보면 KIA 구단은 과거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을 초청해 의미 있는 시구 행사를 펼치곤 했다. 그 빈도와 정성에서 다른 구단을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스포츠춘추와 불시 점검에 나섰던 박 조사관은 "KIA 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장애인 현장 예매 시스템을 확실히 재정비했다. 또 장애인 팬들의 온라인 및 모바일 웹 사이트 접근성 향상도 제안했는데 구단에서 적극 검토한 뒤 KBO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서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이행 계획도 확실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차별 구단'이라는 오명을 쓸 뻔했다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KBO리그 '장애인 차별 철폐' 모범 구단'으로 변신한 KIA는 "장애인 팬들이 현장 예매와 경기 관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서 세심히 신경 쓰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 권고 내용은 비단 우리 구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다른 구단도 다 비슷했다. 무엇보다 인권위 조사와 관련해 억울한 면도 있었고, '사실과 다르다'고 어필하고 싶은 것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하고 싶은 말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건 '단 한 명의 팬이라도 만족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야구장에 찾아오시는 모든 팬의 발걸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다." 조 프로의 각오다.

'롯데 CCTV 사찰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혔던 인권위 조사관, 8년 후 '프로야구 장애인 차별 조사' 맡아

2014년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CCTV(폐쇄회로)를 이용해 선수들을 사찰, 감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간 비밀비재했던 프로구단의 선수 감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시 KBO와 롯데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덕분이었다.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로 롯데 구단이 호텔 협조를 받아 CCTV를 통해 선수들의 사생활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CCTV를 통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런 관행이 개선되도록 KBO 총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KBO가 인권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당연하다는 듯 CCTV로 선수 사생활을 감시하던 구단들의 관행은 단번에 근절됐다. 다른 프로스포츠에서도 관행처럼 자행되던 'CCTV 감시'가 자취를 감췄다.

당시 롯데 CCTV 사찰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쳤던 인권위 조사관이 바로 이번에 KBO와 KIA 구단을 상대로 여러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이끌어낸 박성훈 조사관이다.

박 조사관은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한 KIA 구단을 보며 역시 명문 구단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며 "왜 인권위가 필요한지, 인권위와 민간기업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개선을 시도했을 때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KIA를 제외한 다른 구단과 KBO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 러시아에 억류된 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는 언제 풀려날까

미국여자농구의 간판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32·미국)는 언제쯤 러시아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그라이너는 오는 7일 2022 시즌 개막을 앞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의 '아픈 손가락'이다. 2013년 드래프트로 피닉스 머큐리에 입단해 이듬해 팀을 챔피언으로 이끌고 2016 리우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미국에 금메달을 안긴 간판 센터인 그는 현재 러시아에 억류중이다.

WNBA 비시즌을 맞아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서 잠시 뛰려던 그라이너는 지난 2월 중순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약밀수'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그의 집에서 대마초 농축액인 해시시 오일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가 나왔기 때문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지만 그라이너가 체포될 당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미국 주도하에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던 시기였다. 국제스포츠계에서 러시아팀과 선수들에 대한 대회 출전금지 조치가 이어지던 때라 러시아 정부가 그라이너를 보복대상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그가 러시아 정부가 탄압하는 동성애자라는 점도 부각됐다. 그라이너는 러시아 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3일 피닉스 머큐리의 지난주 프리시즌 홈 개막전 행사 분위기를 스케치하며 관련 소식과 전망 등을 전했다. 신문은 "그라이너 억류 이후 처음 열린 피닉스의 공식행사에서 그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서 "이는 의도된 침묵이었다"고 보도했다.

WNBA는 인종차별, 소수자 인권보호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매우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해온 대표적인 스포츠 리그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흑인이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선수들이 즉시 경기 보이콧을 선언한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번 일에는 선수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상대가 러시아 정부이고, 그들이 이 문제를 부풀려 크게 만들수록 그라이너는 정치적 협상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러시아에 3년간 잡혀있던 미국 해병대원이 풀려났다고 발표했다. WNBA 선수들은 그라이너가 다음 차례가 되길 바라며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세한 속사정을 알 수 없는 팬들은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피닉스 팬들은 "그라이너가 만약 NBA의 유명스타였다면 이처럼 주목받지 못했을까"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어서 빨리 그가 자유를 찾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동성 간 성희롱 가해자에 징계 요청

스포츠윤리센터가 동성 간에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체육회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언어폭력 사건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동성 간 성희롱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 종목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사건, C 종목 학생부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를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사건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위에서 징계 요청 의결한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단체에 의결대로 처분을 요구한다.

수사 의뢰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담당 수사 기관에 직접 수사를 요청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4월 말까지 6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정비 추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614092477776>

대한체육회, '품위 손상' 男 배구 정지석 국가대표 자격 1년 정지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573000>

이석문 '미래형 학교 체육 교육 방안' 연구 용역 추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61510339464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문체부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체육회와 협력해 잘 대응하겠다"

<https://www.news1.kr/articles/?4672462>

어수선한 체육계... 선발 일정·계획, 혼란 불가피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6313_35744.html

'교육활동 정상화'... 학교현장 속 체육활동 추진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506010001539>

울산시, 202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2_0001855135&cID=10814&pID=10800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격 연기... 체육회 '난감' 선수들 '당혹'

<https://www.khan.co.kr/sports/sports-general/article/202205062202035>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날 100주년 희망 자전거 전달 [경륜]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20505/113250314/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